아름답게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봉행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소중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불자들은 앞으로도 조화로운 세상과 화합하는 사회를 이루고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귀한 인연은 스스로 만든다 하셨습니다. 기원대회를 계기로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의 길, 화합의 길에서 활짝 핀 미소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듯 앞날의 소중한 인연 또한 금세 맺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꽃향기의 장엄을 넘어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맑고 푸르른 절기와 같이 항상 청안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햇별과 단비가 들어 희망하는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